





吳氏生命無關  
正十一年度豫其編成  
하야大臣으로부러說  
其處着電言依한즉今回河南兵變  
主要事項에對하야協

에同國保護의責任이有한지라巴魯政府에納入하고도利奈馬고스다리카兩國의開戰乃是더인즉何에困難하야와至中米諸邦에軍事動亂의發生을하야專賣局의經費를支

必要場合ハ輸移出年額が百萬石以上  
の險査施行に依テ其品質向總督府の主張ヲ固執  
シ上高朝鮮大豆の聲價が大升昂百の委員會ガ잇ス

[illegible]

中限	一三、七〇〇石	汝看 屏 高
先限	六六、二〇〇石	
賣買石數	四四、八〇〇石	

分賣所 京郷各場

分國音



창경원이 가장 번창하다

는 불노리	오회하얏	밋날수업
의푸른새학이	라보히엿스며	들은차못밋배하
차속보알	이곳커곳	과뫼창

[illegible]

이 일과 양디방 법원에 서  
금모집한 현을 술의 공판

신민단원  
동지두명 파가치  
을가지고 순천군후란면  
順川郡厚瀾而兩浦里)에  
노리창모(李昌模)의 집에

[illegible]

李太叔의 지체를 받  
 들이신다. 자를 낳아  
 수복되니 이 천재  
 도인金剛道人은  
 도를 수습한 지가  
 三百年이 된다.

安州郡 安州은 안주군 (安州郡)  
 安州府 安州은 안주부 (安州府)

까지 맛까지 고도라 온일이 발과  
지나찬이 실일일에 하흥디

▲鄭澈球懲役一年六個月▲金  
信根懲役十個月▲韓原七▲崔  
大衛▲姜協家▲安應俊▲鄭明

의실에 잠간 눕거하였던 처에 밋  
침조신형사 세사람과 일본형사  
사람이 뒤를따라드려와서 신

은보고 안장은 리묘(李苗)를 데려와  
 었는데 이 삼십분동(三十分洞)이나 겨루  
 다가가 잡히어 정찰(正察)에 구인되  
 의사(李)배식(李培式)씨도

화곡의공소공판  
평양에서열니아

다 불쌍커 노앗슴으로 세사람은  
회한결과 할수업시  
모덕을달 치못하고 각々  
도라왔는데 피고는 도라오는길  
리승으로부러 돌돌이삼사일  
다시돌돌이타이니 그날오후

피를 탈취하고 또여가만잇스면

중구식초를 가지고 주재소에서 약오마당의 디엠펜을 하며 불을 노랑하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안(金基煥)등에게 리현식(李賢植)·김기준(金基俊)·김기

면서기를 사죄하랴 만할  
면서기를 사죄하랴 만할

덤에 출장하야 덤원일동  
에 그집에차켜왔든사람

明月館一號室에  
 비밀에 붙여 었다더라 (책)

한시반이나 늦게  
일교습시반 본사에

한조천(渴)으로 물을 가라운  
박사는 통역지(通譯池)의  
리만죄의 눈물물내이며들  
서시간이느껴져매단심레

경관에게 놀라게 하였다. 이  
때까지 담화를 하다가 밀동

年散解 온갖  
하얏다  
수준조성식 음식으로  
히차리어 바사의 취미를  
도왔스며 만찬이 끝난 후에  
불대표하야 영광조(鄭光  
조)의 환영하는 인사로 가  
이 첫

그럴도를라고 이들동임  
힘을하는중에 그전에  
뜻고 보지못함, 만일

리유  
노매철외국지금운산

— 4 —

두부침에 맛발화

이에서 내남미창녕(南米倉町) 일부를  
축성한다 파자 상을 하는 고교로  
高橋退助의 집과 편지하야 잇는  
응난다 두 부장사 무류마용(木  
藏)의 집을 줄에서 불길 이 돌  
다와고 교의 집 한 창으로 당기  
고히로발은 천정은 잠시 동안  
다타고 불길은 더욱 번갈아

고 감성을 밀하다

가치 있는 것을 하는 중에  
연제든지 한번 조선의

禮言笈里不

동양의보담 東洋衣朋 (鐵路通) 이념복 구의

고관뒤에 몸을숙여가지고

다루도나려와서 금계속에 드립

타스  
에회

사 박  
=





